

## 교회소식

- 예배 후, **친교 시간에 재정부실에서 예결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각 부 부장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부: 음식을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  
- **1월부터** 학생들을 위한 **세례 및 입교 학습**을 시작합니다.
- 선교부: 2020년 세광교회 단기선교  
- 기간: 2020년 2월17일 - 21일(Presidents Day Week)  
- 장소: Honduras (최문재 선교사)  
- 단기선교 모임을 **2시 50분 소예배실**에서 갖습니다.

## 섬기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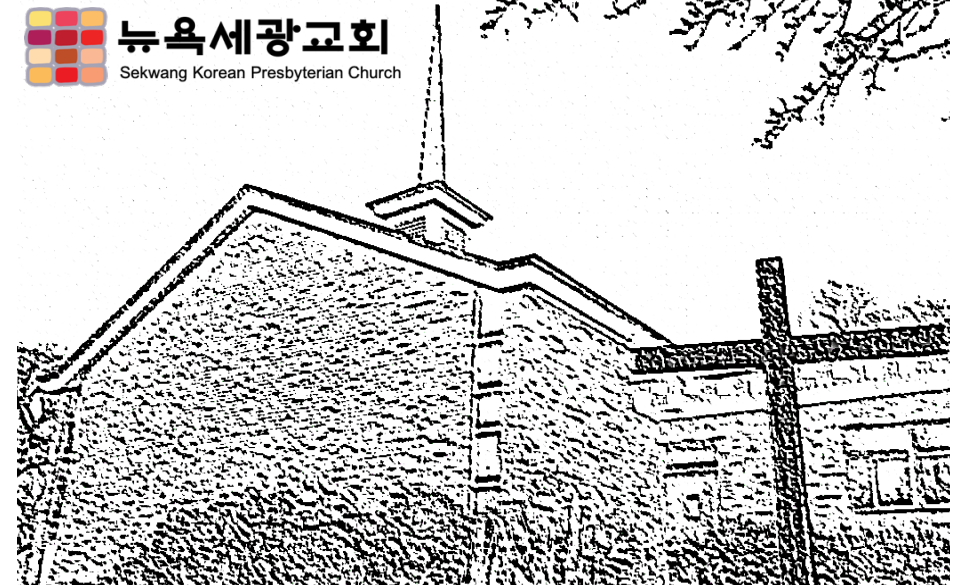
**1월 안내:** 임은도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안상민 집사 (시 27:1, 4-9)  
**이번 주 친교:** 박창규 집사, 최문자 권사  
**다음 주 친교:** 구자금 목사, 전영자 권사

##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록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솔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이정석(WEC 본부),  
 장영호(러시아 미전도 종족),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온두라스)

제20권 3호

2020년 1월 19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 성경공부 및 모임

창세기 성경공부 TBD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사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10,000 Reasons”-----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Ruth 1:11-13, Ruth 4:14-15**----- Pastor Kim

Sermon ----- **“The Lord Does New Things”**----- Pastor Kim

Prayer----- Together

Closing Praise ----- “Broken Vessels”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1장(통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함께  
Opening Hymn **God is Our Refuge Strong**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79장(통79장) “피난처 있으니” ----- 다함께  
Hymn **Praise Him, Praise Him**

대표기도-----시편40:1-11----- 신미라 권사  
Prayer **Psalms 40:1-11**

찬양 -----“존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이사야 51:4-6; 9-11; 52:7-10; 53:1-6**-----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51:4-6; 9-11; 52:7-10; 53:1-6**

설교 ----- “여호와의 팔이여”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찬송 ----- 406장(통464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다함께  
Hymn **I Have Found Sweet Rest**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 지난 주 주일 말씀

#### 미문을 넘어 사도행전 3:1-10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찬란하고 웅장한 성전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이 아니라 구걸하는 곳이었습니 다. 한 번도 미문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황동을 입혀 아름답게 빛나는 미문은 성전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찬송 대신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과 입에 발린 “God bless you!”가 전부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더러운 사람처럼, 영원한 문은 역시나 열리지 않을 것처럼(시 24 참조) 이날도 미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아니 베드로와 요한을 살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문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전이 아니라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형제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날마다 올라가던 그 길을 멈추고 매일 지나치던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사랑은 멈춤이고 시선입니다. 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고 주목한 것은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눈을 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주님이 멈추어 주목하시고 부르셨기에,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셨기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주목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눈으로 이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눈, 동전을 바라고 내민 손에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본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자기를 주목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라 명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눈으로 주목하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본 것은 베드로의 눈, 잡은 것은 베드로의 손, 전한 것은 베드로의 입이었지만,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얻은 것은 은과 금도 아니고, 앓은뱅이가 일어난 기적도 아니고, 처음으로 미문을 넘어 성전에 들어가 예배한 그것이었습니다. 가로막았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격없는 사람이 백성된 것입니다. 동정과 정죄, 비굴과 원망을 주고받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 “함께”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영광의 왕이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주목하여 보시고, 복과 의를 주시는 목자십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여시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목자로, 왕이요 주님으로 맞아들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웅장한 건물이나 찬란한 장식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문이기에, 주목하여 보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눈길과 손길과 입이기 때문입니다.

<Memo>